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 회의일시 : [1차]2019년 5월 3일(금) 16:00~19:00 / [2차]2019년 5월 10일(금) 14:00~19:00
- 회의장소 : [1차]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차]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지원심사는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1차로 서류심사를, 2차로 PT 및 인터뷰 심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극작부분에서 3명, 연출부분에서 3명이 최종 결정되었다.(참고로 올 해는 극작에서 21명, 연출에서 35명이 지원하였으며, 1차에 극작에서 5명, 연출에서 7명이 선정되었다.)

서류심사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지원 서류를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인터뷰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업적물과 공연기록을 토대로 PT발표와 인터뷰를 병행해 진행되었다. 극작부분은 그동안 쓴, 공연된 희곡들을 읽고 분석하였고, 아카데미에서 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를 확인하고 여기에 보탤다. 연출부분은 공연 영상 및 연극 활동, 연출 경력, 연출한 작품의 내력과 아카데미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 등을 참조하였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가운데, 이렇게 '친절한', '정성을 다하는' 지원프로그램은 드물다. 이 지원사업은 젊은 극작가와 연출가들을 선정해서 멘토와 함께 희곡쓰기와 연출하기를 이끌어 가고, 이에 필요한 바를 지원하는 그야말로 자료조사에서 공연에 이르기까지 올라운드 형, 책임형, 완성형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정된 작가와 연출가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바를 가지고 자료조사와 창작준비, 중간발표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좋은 극장공간에서 발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렇다고 이 지원프로그램이 선정자들에게 많은 약속을 전제로 실현과 의무형 평가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재형 의무 지원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최종 평가는 지원자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자들은 지원에 힘입어 자신들의 전문적 수업시대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큰 자유와 적당한 의무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류심사의 기준은, 지원자의 작업태도, 의도, 계획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것은 작업의 연계성, 작업의 참신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했다. 대체적으로 시의적인 주제가 많았다. 치매, 낙태, 역사문화재의 환수 등. 이런 주제들은 지원대상자들이 젊은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게 보였다. 연출 부분에서는 새로운 표현 형식, 연극 언어의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원한 이들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극적 환원, 연극적 발언 등을 이어가려고 했다. 다만 서류 심사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기록들과 2차 심사 전에 제출된 희곡 및 연출영상을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3. 인터뷰 심사의 기준은, 제출한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이 큰 자리를 차지했다. 지원자들

의 구체적인 발표를 듣고, 심사위원들은 질문을 이어갔는데, 이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 창의성, 작품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했다. 극작 부분에서는 글쓰기의 고전적 형식, 그러니까 글과 말을 통한 전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작품들이 있었고, 연출 부분에서는 관계, 가면, 이머시브 형식과 같은 연극의 사회학적 역할을 말하고 오늘날 현대 과학과 연극의 변화를 말하는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작품과 지원자들도 많았다. 연극은 분명 그 시대의 산물일 터인데, 이 두 가지 연극언어 즉 말과 표현의 다양성은 이번 심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은 말을 다루는 극작과 연출부분에서는 말의 진정성, 말의 구조, 말의 소통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과학기술과 연극표현의 확대, 관객 주도형 연극 등 표현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극작과 연출 지원대상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의 반복인지를 경계했고 그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연극성, 삶과 연극의 진정한 관계를 무시하지 않도록 심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4.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연극하는 젊은 작가와 연출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이다. 이들의 희곡작품과 연출한 공연들은 아직 성글기만 하다. 이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분들은 무엇보다도 많은 선배 작가와 연출가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선배 작가들의 실천과 자신들의 작업을 비교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성숙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한 단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 이상 나아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연극은 만남을 전제로 한 예술인데, 창작하는 작가와 연출가에 있어서 자신들이 존경하고, 함께 하고 싶은 선배 작가와 연출가들과 공부, 협업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되지 못한 작가와 연출가들도 더욱 정진하기를 기대한다. 좋은 연극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연극예술의 원칙을 언제나 가슴속에 담아두기를 기대한다. 공공지원금의 가치를 잊지 말고, 성숙한 예술가들로 우리들 앞에 우뚝 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